

조합장이 타지역 쌀귀리 '강진産' 둔갑 시도

도암농협 조합장 72t 수매하려다 적발...반입 쌀귀리 반품 조치 업체 유착 의혹 속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무용지물 비판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출원돼 강진산 쌀귀리만을 취급해야 할 농협이 이를 무시한 채 타 지역에서 쌀귀리를 반입,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말썽을 빚고 있다.

강진군과 강진 도암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진 도암농협 곡물수매장에 '가공용 수입쌀'이라고 새겨진 수입쌀 톤백에 담긴 쌀귀리 70여 개(72t)가 수매에 나섰다. 하지만 수입쌀 톤백을 수상히 여긴 한 농민의 항의로 수매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도암농협 측은 3·4일 양일간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열고 반입된 쌀귀리 모두를 반품 조치했다.

확인 결과 반입된 쌀귀리는 인근 진도와 신안에서 수확한 것이고, 윤재선 도암농협 조합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수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원들도 모르게 진행한 수역대 수매시도는 "농협을 개인기업 정도로 생각하는 사적인 거래가 아니냐"며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진군이 대표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쌀귀리는 현재 250농가 900ha에서 계약재배 되고 있다.

도암농협이 물량을 위탁 수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350여t은 'D식물'이 수매가에 10%를 얹어 도

암농협에서 매입해 가고, 나머지 450t 중 일부는 도암농협이 가공해 '강진쌀귀리'로 유통 판매되는 방식으로 소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암농협에 할당된 물량을 윤 조합장이 조합장 이전에 운영했던 A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처리 하고 있어 현직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윤 조합장의 친구인 B모씨가 대표로 선임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주는 윤 조합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의 배경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조합장은 "가마당 가격이 2000~3000원 저렴해서 매입하려 했지만 품질이 2등급으로 떨어져 반품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화된 농산물을 입증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취지를 무시하고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윤 조합장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지역민은 "윤 조합장의 처사는 쌀귀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특화품목 활성화와 생산자·소비자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 1일 강진 도암농협 곡물 수매장에 톤백에 담긴 쌀귀리 70여 개(72t)가 수매에 나섰지만 수입쌀 톤백을 수상히 여긴 한 농민의 항의로 수매가 보류됐다. 톤백에는 '가공용 수입쌀 (네모 안)'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화순군, 불법행위 집중단속

화순군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배출 행위 ▲고질 민원 발생과 반복 위반 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군은 필요 시 시료를 채취, 분석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과 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행위 예방 사전홍보와 계도문을 발송하고, 2단계는 사업장 특별감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복구와 공정 진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부모교육 전문가 초청 7일 장성아카데미 강연

장성군이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부모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장성군은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안영희(사진) 마음맞춤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2009년부터 14년째 현장에서 활발하게 상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모교육 전문가다. 지금까지 3000회 이상의 강연과 상담을 통해 6만여 명의 부모와 청소년을 만났다. 저서로는 '사춘기 자존감 수업', '진짜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이 있다.

안 소장에 따르면 사춘기에는 행동, 감정, 생각의 세 가지 영역이 모두 위기를 맞는다. 이를 잘 극복해야 어른이 되었을 때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갖추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가 어긋나지, 성장할지 여부는 아이의 '자존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행복 증진 방법을 공유해 자녀의 자존감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061-390-8577)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호남의병장 김태원 선생 충혼비 함평에 재건립

순국 114주년 맞아 함평공원에 비석 기반모양 일제 잔재 없애

호남의 대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선생을 추모하는 충혼비가 함평공원에 재건립됐다.

함평군은 김태원 의병장 순국 114주기를 맞아 선생의 의로운 넋을 기리고 자주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충혼비를 재건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함평 군민들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평공원에 충혼비를 세웠으며, 1993년 재건립했다.

하지만 1993년 건립된 충혼비 비석의 기반 모양이 일제의 영향을 받은 데다 비문의 내용에도 오류가 있어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호남지역의 항일 의병을 이끌었던 선생을 기리는 충혼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 부끄러운 마음뿐이었다"며 "이번 충혼비 재건립으로 선생의 숭고한 항일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병장은 1907년 호남창의회맹소 선봉



호남 대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선생 충혼비. <함평군 제공>

장으로 나서며 호남지역 항일 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일본 기병의 기습으로 전사했으며, 1962년 그 공훈을 인정 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최형식 전 담양군수,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민선 3기, 5~7기를 이끌며 16년 간 담양 발전을 진두지휘한 최형식(사진) 담양군수가 퇴임하며 "지역 인재육성을 써 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최 전 군수는 인문학과 대안교육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인문학 교육과 전통정원특구 지정, 공립 대안학교 1호인 송강고와 페이스튼국제학교 유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까지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안교육도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최 전 군수는 "퇴임 후에도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라면서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 추가 모집

담양군이 관내의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주소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 두고 거주한 21세부터 28세(1994년~2001년 출생자) 청년이며 연령과 주소 기준 충족 시 매년 지급된다. 다만,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수급

이 불가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협카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20년 1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전남으로 전입해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 추가모집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